

# 피카소·샤갈이 그렸던 佛대표 와인 라벨... 이번에 이우환 작품

〈샤토 무통 로칠드〉

거장들 참여 '名畫 컬렉션'  
한국 화가가 맡은 건 처음

한국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(79) 화백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와인 샤토 무통 로칠드(Chateau Mouton Rothschild) 2013년산의 와인 라벨 〈사진〉을 그렸다. 피카소, 샤갈, 달리 등 매년 다른 세계적 거장이 그려 '명화 컬렉션' 이라고도 불리는 무

통 로칠드의 라벨을 한국 화가가 맡은 건 처음이다.

라벨에 들어간 그림은 자줏빛 물감을 굵은 붓으로 한 번 콧 찍어놓은 듯한 형태로,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깔이 짙어진다. 무통 로칠드 측에서는 "위대한 와인이 완성되는 과정을 표현했다"고 평했다.

무통 로칠드를 수입하는 아영FBC 우종의 대표는 22일 "지난해 8월 필리핀 드 로칠드 남작 부인의 장

례식장에서 두 아들 필립과 줄리앙이 '와인 라벨을 그려줄 한국 작가를 추천해달라'고 부탁했고, 이우환과 천경자 화백을 소개했다"고 전했다. 우 대표는 "지난해 베르사유궁(宮)에서 열린 이우환전을 보고 ' 훌륭하더라'고 했다"며 "이때 이 화백으로 결정한 것 같다"고 말했다.

무통 로칠드는 유대계 재벌가 로스차일드(Rothschild)가 소유한 와이너리. 1945년 나치 독일로부터 프

랑스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 화가 필립 줄리앙에게 승리(Victory)를 뜻하는 V자를 그려달라고 부탁한 이후 세계적 작가에게 라벨을 의뢰하는 전통이 자리 잡았다.

작가에게는 작품료 대신 그림이 들어간 빈티지(생산연도)와 또 다른 빈티지의 무통 로칠드 와인을 1케이스(12병)씩 준다. 2012년산 무통 로칠드의 경우 병당 가격이 170만원(소매가 기준)가량이다. 김성윤 음식전문기자

